

화염병 대신 詩를 던진 저항시인



지난 25일 타계한 문병란 시인은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작품활동을 펼쳤던 남도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다. 생전의 고인 모습. <광주일보 자료>

타계한 문병란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에 은하수가 너무 길다...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뚝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직녀에게’ 중에서)



남과 북의 분단을 견우와 직녀에 비유했던 ‘직녀에게’는 문병란 시인의 대표작이다. 이 시는 1987년 가수 김원중 씨가 노래 ‘직녀에게’를 만들어 부르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인의 시는 분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일을 향한 간절한 희원으로 다가온다. 지난 25일 타계한 문병란(1934~2015) 시인은 시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 했던 남도가 배출한 대표적인 문인이다. 그는 평생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을 우리르며 문학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그를 아는 지인들은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 “거리의 교사”라고 부를 만큼 그의 삶과 문학에 경의를 표했다.

고인은 1934년 화순에서 한학을 하는 부친 밑에서 태어났다.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그에게서 선비의 기질과 지사적 풍모가 보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1963년 대형 김현승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가로수’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시인은 줄곧 부조리한 현실에 맞

화순 출신... 1963년 등단 독재시대 통일·민주화 헌신 부조리에 맞선 ‘무등산의 연인’

서는 작품을 썼다. 초기의 시는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한 시와 역사, 현실에 토대를 둔 작품이 주를 이룬다. 1970년 첫 시집 ‘문병란 시집’을 펴내며 시인은 서문에서 “시는 시인에게 하나의 신앙과 같은 것”이라는 말로 시에 대한 관점을 드러냈다. 즉 시인은 시를 매개로 부조리현실과 부당한 행포를 견딜 수 있다고 보았고, 시 창작은 산고의 고통에 비유될 만큼 가치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80년대를 전후해서는 저항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시들을 발표한다. 특히 그는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고초를 당했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족, 민중,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시집들이 판매금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벼들의 속삭임’, ‘5월의 연가’ 등 시집에 드리워진 비판의식은 자연스럽게 민족, 민중문학 창작에 매진하는 계기가 된다. 시인은 교육자로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 순천고, 광주제일고 교사를 거쳐 1988년 조선대 국문과 교수로 임용돼 후진을 양성했다. 이후 민족문학작가회의 광주전남 공동대표를 맡아 지역 작가회의 태동에 산파 역할을 담당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와 5·18기념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민주화운동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는 동안에도 그의 시는 늘 현실에 입각한 저항정신과 시적 성취를 향한 심미적인 특질에 닿아 있었다. 시를 관통하는 일관된 기조가 남도의 정서인 만큼 그의 작품은 서정적이었다. 2000년 전후로는 생활 속의 감정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시들을 발표했으며 의식의 내면을 탐구하는 작품도 선보였다. 김준태 시인은 “문병란 선생은 전라도가 낳은 향토시인이며 민주시인이며 민족시인이며 무등산의 연인”이라며 “잠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이들의 증인”이었다고 했다. 고인은 조선대학교에서 퇴임한 이후 서은문화연구소를 개원하는 등 문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광주문화관 개관 문제와 용아기념사업 등 지역문학의 현안에도 문단의 어른으로서 힘을 쏟았다. 시집으로 ‘죽순밭에서’, ‘벼들의 속삭임’, ‘땅의 연가’, ‘새벽의 서(書)’와 산문집 ‘저 미치게 푸른 하늘’ 비롯해 문학이론서 ‘현장문학론’, ‘민중문학 강좌’ 등 30여 권을 출간했다. 한편 고인은 요산문학상·전남문학상·광주예술상·박인환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밤이 피다’...박성휘 작가 초대전



‘밤이 피다’

자미갤러리

내달 2~14일

자미갤러리가 10월 2~14일 박성휘 작가를 초대해 ‘밤이 피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박 작가는 여성의 수동성을 극복한 독립적이고 지혜로운 인간의 전형인 바리데기 신화 속 ‘바리데기’를 주인공으로 한 서양화 30여점을 선보인다. 한국 대표적 여성 무속신화인 ‘바리데기’의 바리공주는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여성상을 대변한다. 부모로부터 버림 받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구해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개척하고 만인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다. 이번 전시회에서 박씨의 모든 작품은 밤을 배경

으로 한다. 설화 속 동물(여우)과 함께 연분홍빛 자귀나무꽃을 등장시켜 사랑과 생의 환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단아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여우와 함께 밤길을 걷는다거나 슬픈 듯 깊은 눈망울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마음 속 아픔을 뒤로 하고 희망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전남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한국미협, 광주·전남여성작가회 등에서 활동하며 ‘타사외 한강나귀’ 등 개인전 5회와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피아니스트 이안 흡슨 연주회 내달 1일 전남대 예향홀

‘가을밤에 듣는 쇼팽과 라흐마니노프’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이안 흡슨 초청 연주회가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향홀에서 열린다. 전남대 피아노연구소(소장 신수경 음악학과 교수) 초청으로 광주 공연을 갖는 이안 흡슨은 40여년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재직했으며 올 3월부터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영국 출신으로 영국왕실 음악원, 케임브리지 대학을 거쳐 예일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1983년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시카고 심포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또 베토벤 소나타 전국 연주회를 비롯해 브람스 피



의 기쁨’, ‘사랑의 슬픔’을 들려준다. 전시 초대.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

아노 솔로&앙상블, 슈만, 쇼팽 전국 연주회도 가졌으며 60여장의 음반을 녹음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쇼팽의 ‘연습곡 작품번호 25’ 12곡 전국 연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10개의 전주곡 작품번호 23’,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크라이슬러의 ‘사랑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내달 8일까지 작품 접수

유·스퀘어문화관이 10월 8일까지 ‘제 6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사진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유·스퀘어에서의 즐거운 하루’이다. 유·스퀘어에서 찍은 자유사진이며 접수자는 나이 등 제한이 없고 핸드폰 사진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작품은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디지털 이미지(JPG, JPEG)형식의 파일만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신청서와 함께 사진파일을 담당자 메일(kimsina131@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입상작들은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 전시되며 최우수 작품 등 모두 26점을 선정한다. 입상자들에게는 오는 11월 6일부터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선보이는 연극 ‘연애를 부탁해’ 초대권과 문화상품권, CGV영화 관람권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의 062-360-84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